

Saemmul Christian Academy

# SMCA 2022 가을겨울 소식지 샘물이야기



# 목차

##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3)

12학년이 샘물의 꽃인 이유

[인터뷰] 2022년 9기의 12학년 담임이었던 반디샘, 라크샘, 마루샘을 만났어요 (4)

- 나한나 선생님 (반디샘) (5)
- 김문정 선생님 (라크샘) (10)
- 강가혜 선생님 (마루샘) (15)

졸업생 이야기: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표가온 (21)

[12학년 감사나눔] 샘물중고등학교 9기, 12학년 황규진 (25)

[12학년 감사나눔] 샘물중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 (김서원 학생 어머니) (30)

[12학년 감사나눔] 샘물중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 (박정훈 학생 어머니) (36)

## 샘물배움공동체 교실 속 이야기 (40)

은혜샘물유치원 갤러리 (41)

은혜샘물초등학교

1학년 고사리손 프로젝트\_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43)

자연을 그리는 우리들의 자연도감 (45)

음악과 함께하는 미술시간: 칸딘스키처럼 (48)

역사와 함께하는 미술시간: 5학년 역사인물 팝업북 (50)

샘물중고등학교

임인년 국어과 과거시험 (53)

7학년 샘물수업 과학기술창안대회 (58)

9학년 샘물수업 '이웃사랑 프로젝트 (62)

10학년 과학탐구실험수업 (64)

11학년 언어와매체 카드뉴스 (68)

7학년 사회 자연재해 뉴스 제작하기 (69)

8학년 샘물의 해바라기 (70)

시상

2022년 샘물중고등학교 제 10회 독서마라톤 시상 (72)

2022년 학부모 자경서상 시상 (73)

#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 12학년이 샘물의 꽃인 이유

**[인터뷰] 2022년 9기의 12학년 담임이었던  
반디샘, 라크샘, 마루샘을 만났어요**

샘물의 꽃은 12학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2학년을 겪어야 샘물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의미로 많이 통하는데요. 알쏭달쏭한 이 말을 들으며 도대체 12학년에 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 2022년 9기의 12학년 담임을 맡았던 3명의 선생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세 분 모두 몇 년 동안 12학년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이기에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책임자로 여겨졌어요. 9기의 졸업을 앞둔 지난 1월, 반디샘, 라크샘, 마루샘을 만났습니다.



### 나한나 선생님 (반디샘)

영어교사 (2013년~)

12학년 담임 (2022년, 9기)

2022년, 9기의 1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반디샘 나한나입니다. 2013년부터 샘물에서 영어교사로 함께하고 있어요.

### 10년차 기독교교사가 생각하는 기독교 학교의 교사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참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느 학교 선생님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학교 교사나 샘물의 교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우리의 삶과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적용하기 위

해 더 많이 고민하고 먼저 노력하고, 또 아이들에게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계속 권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억에 남는 제자, 선생님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준 학생

기억에 남는 학생이 많지만 올해 12학년 담임으로 만났던 친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학생은 12학년 내내,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 샘물의 6년 내내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 조퇴를 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버거운 12학년을 보내면서도 아침 말씀 묵상때도 한번도 자세가 흐트러진 것을 본 적이 없는 친구이기도 했어요.

이 친구가 입시 과정에서 희망하는 대학, 그리고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던 대학에 실패를 한 거예요. 속으로는 엄청 많이 힘들어했죠. 그런데 늘 섬기는 자리, 공동체를 살피는 자리에 있던 친구라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입시 후에도 여러가지 일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자랑스럽고 또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 담임교사 입장에서 내가 이 아이 진학 지도를 실패했구나, 이런 자책과 미안함이 많았어요. 서로 만나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합격이 됐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어도 그래도 선생님이 제 마음을 먼저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셔서

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말해 주어 제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 반디샘의 샘물, 섬김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킨 곳

제가 처음 참여했던 2014년 국토순례 세족식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었던 지리산 코스였고 마지막 날 밤에 저희가 세족식을 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수고했다,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 발을 조장 아이

“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 그 마음이 좀 부끄럽고 속쓰러울 수 있겠구나, 그러나 내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내어줄 때 또 섬김과 사랑이 가능하겠구나...”

에게 맡기는 순간이 온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속스럽고 제 발을 보여준다는 것조차 부끄럽더라고요. 그

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 그 마음이 좀 부끄럽고 속쓰러울 수 있겠구나, 그러나 내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내어줄 때 또 섬김과 사랑이 가능하겠구나, 섬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한 장면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 “샘물의 꽃은 12학년”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12학년을 굉장히 치열한 시기예요. 좌절하고 아픔도 겪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동안 닦아왔

“12학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장면이 있지만 저는 목장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2학년을 담임 교사와 반 아이들이 함께 일주일에 한번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묵상과 감사 나눔, 기도제목 나눔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도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서로에게 잘 나눠줍니다. 때로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던 영성, 인성, 학업의 실력이 12학년 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12학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장면이 있지만 저는 목장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2학년을 담임 교사와 반 아이들이 함께 일주일에 한번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묵상과 감사 나눔, 기도제목 나눔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도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서로에게 잘 나눠줍니다. 대입이라는 무게로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마음을 나눈 친구, 때로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몇 개월의 과정 끝에 아이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힘들어했던 친구가 목장에서 자기가 왜 샘물에 있는지 이제야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샘물에서의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고 친구들 앞에서 고백해 주어 제가 참 많이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반의 아이들이 서로 모두 다 친하고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장이라는 자리가 있었기에 본인의 힘들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잘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뿐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시고 키워

가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되고 늘 감사하게 됩니다.

### 샘물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사실 다른 학교의 경우, 수능을 끝낸 고3은 입시를 끝낸 수험생으로 편안한 시간을 많이 가질 텐데요. 우리 학생들은 그 시간에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힘을 쏟는 것을 옆에서 보면 참으로 대견합니다.

학과별로 후배들 학업 지도도 해 주고요, 후배들을 위한 입시설명회에 함께 하며 질의응답도 참여합니다. 올해는 유치원의 성탄 예배를 도와 은혜샘물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도 했고요, 밥퍼공동체(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에 봉사활동을 모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고 싶고 또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을 누리고 싶은 시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함께 해 주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는지, 샘물인으로서의 정

체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는 샘물의 졸업생

12학년 때 말도 안 듣고 대들기도 하고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보고 싶다고 찾아와서 자기들의 삶을 나눠주고 가요. 군대 간 친구, 굉장히 원했던 학교를 붙였는데도 다른 사회 경험을 해볼

“ 수능 후, 사실은 굉장히 쉬고 싶고 또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을 누리고 싶은 시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함께 해 주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는지, 샘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까 휴학한 친구,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 후에 결국 공부가 제일 쉬웠다며 학교로 돌아간 친구, 신앙과 봉사 동아리에서 열심히 훈련 받는 친구, 그동안은 자기 신앙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데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니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더라 고백하며 소그룹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친구 등등...

항상 감사한 것은 샘물의 졸업생들은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진로 컨퍼런스, 선배와의 대화, 멘토링 등등 이러저러한 학교 행사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면 시간만 되면 달려와줘요. 그리고 심지어 불러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와줘요. 그 귀한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12학년 선생님들의 특권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 진로의 한복판, 12학년 담임으로 몇년을 씨름해보니

사실 중학교 때부터 진로가 뚜렷이 정해지면 뭔가 준비된 친구 같고, 그렇지 않으면 늘 대답할 것들을 찾느라 시달리는 아이들을 많이 봐요. 진로수업도 듣고 노력을 해오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12학년이 되어서 뭔가를 정해가는 경우도 있고, 졸업 후에도 계속 탐색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길을 일찍 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탐색하는 과정도 너무나 소중한

하고 자신을 발견해 가는 과정,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학생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 \*



“ 길을 일찍 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탐색하는 과정도 너무나 소중한하고 자신을 발견해 가는 과정,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학생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정 선생님 (라크샘)

수학교사 (2014년~)

12학년 담임 (2022년, 9기)

안녕하세요. 2022년, 9기의 1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라크샘 김문정입니다. 2014년부터 샘물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샘물에 오게 되셨나요

제가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온 게 2013년 9월이었어요. 원래 했던 대학 강의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제가 다니던 교회 주보 광고에 샘물중고등학교 수학교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그해 12월부터 수학교사로 함께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왔을 때는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인도해주셨어요.

#### 수학 박사님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공부했던 것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너무 달라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요. 처음 1-2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3-4년 때까지도 거의 매일 11시까지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매년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 정말 고3의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 “대안학교지만 입시도 잘 해야겠다” 내 생각을 바꾼 한 명의 제자

2014년, 11학년 담임을 맡은 첫 해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11월 모의고사를 보고 상담을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의대를 목표로 한 학생이었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본인도 열심히 하는데 모의고사 점

“제가 그때 딱 결심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가졌을 때, 샘물에서 행복하게 그 입시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때부터 한국의 입시가 어떤 것인지, 대학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교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치동 학원들을 돌아다니고 학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수가 안 나오니 본인에게 실망하고 선생님에게도 미안하다고요. 이대로 고3이 되어도 될까 걱정하며 우는데 제가 그때 딱 결심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가졌을 때, 샘물에서 행복하게 그 입시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내가 수학 교사이니 수학으로 어떻게든 끝까지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입시가 어떤 것인지, 대학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교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치동 학원들을 돌아다니고 학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사교육 없이 입시는 어려운 것일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외부의 다른 선생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 사교육없이 입시는 어려운 것일까

12학년을 오래 같이 했던 폴샘(현, 양석현 교장선생님)과 함께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진로진학모임에 가면서 눈이 좀 뜨였어요. 다양한 전형 방법도 연구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사교육 없이 입시는 어려운 거

라는 통념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꾸준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거쳐 졸업생들을 통해 결과를 보여주시며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 12학년 진학의 현장에서 라크샘이 만난 하나님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크게 잘하지 않고 큰 달란트가 없어 보여도 그

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이 결과를 이룰 때 정말 기쁩니다. 수학이란 과목이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학생이 수학이 4등급, 5등급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수학을 중간에 놓고, 나는 다른 걸로 최저를 맞춘다고 하면 막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결국은 수학 약식논술로 합격하는 거예요.



12학년 진학의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끝까지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매해 경험해요.

일찍 진로를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2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매진해

도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빨리 찾은 학생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전형으로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꿈을 못 찾았다 하는 친구들도 그래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12학년 때 찾아서 또 길을 여시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서 아무데나 원서 냈어요 하는 친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 졸업생들은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입시 전형 중에 수학의 풀이 과정을 보는 약식논술, 수리논술 전형이 있어요. 수리논술로 대학을 간 1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후배들을 지도해 5기 친구가 수리논술로 대학을 갔어요. 수리논술이란게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첨삭을 계속 해 주어야 하거든요. 선배들의 첨삭 지도를 받았던 그 5기와 6기 졸업생이 올해는 후배들을 위해 수리논술 지도를 했어요. 줌으로 회의를 하고 유형별로 정리하고 세밀하게 가르치고 첨삭을 해주는데 후배들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과 또 다르게 선배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 나서는 졸업생들을

보면 참 자랑스럽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생님들에게 힘내라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 학생들을 통해 매년 깨닫게 되는 나의 연약함

제가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성장하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주도학습이 어렵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 학생들을 보면 잘 못 참았어요.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고 생각해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 말이

잘 들리지  
만 어떤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교육이 일어나는 것인데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올해 아이들과 일대일로 상담을 하며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어요. 상담을 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상담을 끝내고 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달라요. 상담을 하러 들어올 때 모습과 참 다르구나, 애가 지금 다른 기분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올해 아이들과 일대일로 상담을 하며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어요. 상담을 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상담을 끝내고 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달라요. 상담을 하러 들어올 때 모습과 참 다르구나, 얘가 지금 다른 기분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졸업생이 찾아와도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데 그러면 졸업생들이 훨씬 따뜻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습니다.

누구나 안대욱홀에 가서 아침기도를 해요. 어느날 아침기도를 하고 불 끄고 나오려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학생들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9월 모의고사 때, 그리고 수능이 가까이 왔을 때가 그런데요^^. 학생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득차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런 순간들을 매년 경험합니다.

### 라크샘의 샘물 한 장면

\* \* \*

12학년 교사로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저희가 아침 복상 시간 전까지 일찍 등교해 기도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 어느날 아침기도를 하고 불 끄고 나오려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학생들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득차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런 순간들을 매년 경험합니다.



## 강가혜 선생님 (마루샘)

국어교사 (2018년~)

12학년 담임 (2022년, 9기)

안녕하세요. 2022년, 9기의 1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강가혜입니다. 2018년부터 샘물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별칭은 마루샘입니다.

### 기독교사로서의 두려움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도전,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난 그렇게 살아내고 있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고

그래서 사실 저도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두려움은 아이들이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자라면서 한편으로는 나약해지면 어떡하지, 세상 나가서 못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생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길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것을 보고

겪으며 제 염려가 다가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명이 너무 소중한고 그 서사가 다 기억이 나요.

### 초임 교사의 12학년 생활들

2018년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해  
2019년부터 4년간 12학년 담임을 맡

저는 아이들과 교실에서 대화했던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다들 이유는 달랐지만 무척 슬프고, 우울하고, 참 진지했거든요. 성적 때문에, 본인

았어요. 돌이켜 보면 저의 12학년 생활은 두더지가 한 마리 씩 올라오면 막 쳐내는 두더지 게임 같았달까요. 여기 두 마리가 올라와서 막 쳐서 내려보내면 또 다른 두더지가 올라오고.... 감사하게도 두더지들이 다같이 올라오는 않더라구요. 이 친구는 이때 힘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 저

친구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정말 한 명 한

“ 2019년부터 4년간 12학년 담임을 맡았어요. 돌이켜보면 저의 12학년 생활은 두더지가 한 마리 씩 올라오면 막 쳐내는 두더지게임 같았달까요. 이 친구는 이때 힘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저 친구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고 그 서사가 다 기억이 나요.

의 진짜 성적을 봤을 때 무너지고 자존감이 바닥치고, 미뤄왔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부모님과의 갈등, 게다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본질적인 문제부터 나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왜 이렇게 떠들까,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줄까 관계의 문제들까지 정말 두더지처럼 문제들이 계속

올라와요. 12학년은 드디어 자기 삶 앞에 마주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 교사로서 그럴 때.. 어떡해야 해요?

정말 어떡해야 할까요? 저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데리고 나와서 밥을 사먹이고 어떤 친구는 같이 운동장을 산책하고 어떤 친구는 밤에 남아서 교무실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다 만나서 일단은 듣고, 듣고 나서 사실 제가 하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그냥 해!”라고요. 고민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고민이 언젠가 또 사라지고, 하지만 또 올라오고.. 그러니 지금은 그냥 하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너의 어려움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진짜 앞서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저의 공감으로 전하고 싶었고 또한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으니 현실을 살자, 용기와 응원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번 대화 나누고 나면 관계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자기 이



야기를 한 번 털어낸 것만으로도 일단 힘이 됐고 그 후에는 결국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포기도 좀 됐던 것 같고요. 신기하게 저랑 무척 많이 부딪히고 여러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던 친구들이 졸업한 후에도 제일 많이 연락이 와요.

##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해 준 제자들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게 해 준다는 것이 12학년 담임교사의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기억나지만 제가 처음으로 12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그때 당시 우리 반 학생들이 다들 개성이 넘쳤는데 그 중에 축구를 제일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시사철 축구를 해

야 하는 친구였어요. 체육교육으로 진학하고 싶어해서 체육 실기를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몸을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또 다치고, 그럼 연습을 쉬게 되고, 그럼 본인 실기 준비가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그 친구랑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축구 못하게 하고, 그럼 그 친구와 부딪히고, 한번은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엄마한테 가서(편집자주: 선생님의 엄마) 막 울면서 엄마 재 좀 어떻게 해 달라고 말도 안되는 하소연을 할 때도 있었을 정도였어요.^^ 참 사건도 많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대화도 많이 했던 친구인데 그러다보니 이제는 가장 친밀한 제자가 되

어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졸업기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있는데 자기가 저한테 들었던 말들이 요즘 많이 생각난다고 해요. 그 말들이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말들이래요.

### 함께 파송되는 샘물의 졸업식

졸업식 날 아이들과 인사할 때도 눈물이 많이 나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동지애가 느껴지더라구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저도 많이 배웠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눈물이 많이 나고 샘물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일은 정말 기도의 세겉줄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 졸업식 날 아이들과 인사할 때도 눈물이 많이 나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동지애가 느껴지더라구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저도 많이 배웠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눈물이 많이 나고 샘물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일은 정말 기도의 세겉줄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샘물의 졸업식은 단순히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학업을 마친다는 의미 이상으로 정말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학생들도 그동안 함께하면서 겪었던 모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결국 남는 게 공동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특별한 졸업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건 대학 진학을 못하거나 원치 않는 대학에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나가서는 결국 이 아이들끼리 만나서 서로 또 위로하고 힘을 얻어 그다음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정을 갖고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친구들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되는, 샘물의 졸업식은 그래서 항상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 \* \*

“ 감사한 건 대학 진학을 못하거나 원치 않는 대학에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나가서는 결국 이 아이들끼리 만나서 서로 또 위로하고 힘을 얻어 그다음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정을 갖고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친구들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되는, 샘물의 졸업식은 그래서 항상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영상] 학년을 마친 후, 12학년 교사를 만났어요



# 졸업생 이야기

##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표가온

(편집자주) 2022년 12월30일(금), 은혜샘물초등학교 여섯번째 졸업예배가 있었습니다. 39명의 졸업생을 대표해 두 명의 학생이 졸업생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무대 위에 올랐는데요. 그중 6학년 샘물반 표가온 학생의 고백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샘물반 표가온입니다.

저는 5학년 때 편입하면서 온갖 걱정을 했습니다. “2학기인데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은샘초에서의 공부가 너무 힘들거나 벅차면 어떡하지?” 등등 할 수 있는 걱정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기대를 안고 들어왔던 은샘초는 걱정과는 달리 적응하기 참 쉬웠습니다. 첫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저에게 따듯한 인사를 건네며 다가와 주었고, 관심을 가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수업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사회시간은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과 전개로 몰입하여 수업을 들었고, 수학시간은 선생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셔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국어시간에는 다양한 표현들로 제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성경시간도 기대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성경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



“저는 5학년 때 편입하면서 온갖 걱정을 했습니다. “2학기인데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은샘초에서의 공부가 너무 힘들거나 벅차면 어떡하지?” 등등 할 수 있는 걱정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니다. 매일 학교를 가는 것이 기대되었고, 설레었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나를 재미있게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등교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하교할 때에는 제가 아침에 기대했던 만큼 재미있는 생활을 한 것에 감사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사를 2번 해서 총 3개의 학교를 다녀봤는데, 그 어느 학교보다도 은샘초는 저에게 즐겁고,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실제로 저는 전 학교 친구들에게 저희 학교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정도로 좋냐?” 라고 한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저의 은샘초에서의 생활은 완벽했고, 제가 어른이 되더라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죠. 이제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졸업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내가 졸업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반 동안 만나서 가족처럼 친해진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아쉽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아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간식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줄 걸’ 이런 생각들이 저를 더

다. 이외에 모든 과목들도 편입한 저를 환영한다고 느낄 만큼 좋아서, 저는 은샘초에서 그 어느 때 보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6학년이 되어서도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습

“6학년이 되어서도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습습니다. 매일 학교를 가는 것이 기대되었고, 설레었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나를 재미있게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등교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아쉽게 만듭니다. 선생님들과도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선생님들과 가까워지고 별칭도 다 외우고 했는데 벌써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수업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딴 짓한 것에 죄송합니다. 결정적으로 마을 친구들과도 정말 정말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밝게 먼저 인사해 주었고, 귀엽게 웃어 주었고, 잘 따라주었던 동생들과는 개인적으로 3년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운 것만 말했나요? 은혜샘물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나 은혜 샘물 초등학교 나왔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소중한 자랑스러웠던 초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은샘초를 다니며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코람데오를 하며 항상 저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마을을 하며 누나, 언니로서의

“어디 가서 “나 은혜 샘물 초등학교 나왔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소중한 자랑스러웠던 초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은샘초를 다니며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코람데오를 하며 항상 저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마을을 하며 누나, 언니로서의 책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을 들으며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의 책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을 들으며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과학/국어/사회 등 세상에 담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예배를 매달 드리며 전 학년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은샘초를 졸업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이 안에서 많은 배움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소감을 전했지만, 우리 6학년 모두의 마음은 저와 같이 졸업에 대한 아쉬움과 성장에 대한 감사로 풍성할 것입니다. 길게는 6년이라는 시간동안 은혜샘물초등학교에서 생활하게 지원해주신 부모님,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 그리고 든든히 이끌어준 많은 선배들과 귀여운 후배님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 6학년 졸업생 대표 표가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학년 은혜반

6학년 샘물반





# 졸업을 축하해!

## 은혜샘물초등학교 졸업식 풍경과 5학년의 마음

졸업예배에 5학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6학년에게 보내는 5학년의 마음. 은혜샘물초등학교 여섯 번째 졸업식 풍경을 담았어요.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6학년](#) [#졸업](#)



## 전교생 동생들이 준비한 졸업축하 영상



은혜샘물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하는 마을활동이 매주 있어 선후배간 정이 남달라요. 6학년 형님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전교생 동생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전교생 출연](#)



## [12학년 감사나눔]

# 샘물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샘물중고등학교 9기, 12학년 황규진

(편집자주) 샘물중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부모교육은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감사나눔으로 채워집니다. 2022년12월29일(목) 진행된 2022학년도 마지막 학부모교육의 고백을 담습니다.

고요합니다:) 저는 12학년 황규진입니다

오늘 저는 샘물에서의 7년, 그리고 특별히 2022년을 마무리하며 느낀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학년을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친구들과 이랑 이런 저런 수다를 떨거나 잠

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그 짧은 시간을 포기하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각을 자주 하는 친구와 디텐션 예방을 위해 일찍 학교에 오는 습관을 만들자며 아침기도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5분이라도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미션이었고, 그 날 늦어서 기도하러 못 올라간 사람이 점심때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시작한 아침기도였지만,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피곤한 발걸음으로 어두운 예배당에 올라가 의자에 털썩 앉은 다음, 천천히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 꼭 누르고 등교한 날, 기분이 안 좋은 날, 걱정이 많아진 날이면 특별히 더 아침기도를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과 공부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을 하나님한테 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침기도 뿐만 아니라 복상 전 교실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과 기도, 저녁자주 전 복도에 모여 불렀던 찬양과 기도, 선생님들과 여러 상담을 마치고 드렸던 기도, 그리고 첫 논술 시험과 수능을 앞두고 드렸던 기도까지. 돌아보니 그야말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한 일년이었습니다.

“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 꼭 누르고 등교한 날, 기분이 안 좋은 날, 걱정이 많아진 날이면 특별히 더 아침기도를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과 공부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을 하나님한테 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두번째로, 좋은 공동체와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면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몇년동안 매일 봐서 지겹고 징글징글하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9기 친구들이 있

어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보니 서로의 장점 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분도 마주해야 했고 그래서 싸우기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함으로써 아직 서툴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다려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12학년을 지내며 가장 감사했던 점은 여전히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로, 동역자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면접과 논술 시험을 앞둔 날이면 떨지 말고 끝까지 다 쓰고 오자는 응원의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했다면 상대방을 견제하기 바빴을텐데 오히려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어 다행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2학년이 되면 수능을 위한 수업과 공부만 잔뜩 하게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샘물의 선생님들께서 지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신다는 사실을 올해가 되어서야 제대로 알게 된 걸까요,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

“ 12학년을 지내며 가장 감사했던 점은 여전히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로, 동역자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면접과 논술 시험을 앞둔 날이면 떨지 말고 끝까지 다 쓰고 오자는 응원의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했다면 상대방을 견제하기 바빴을텐데 오히려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어 다행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저희를 포기치 않으시며 가까이서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또한 샘물의 선후배들, 부모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연합예배때 저희 12학년을 향해 뻗은 수많은 손과 저희를 바라보는 얼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였는지, 샘물이라는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샘물에서의 모든 시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샘물을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수능 다음날 추수감사예배때 12학년이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샘물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저희를 포기치 않으시며 가까이서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12학년 감사나눔]

# 학부모 이야기 (1)

샘물중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 (김서원 학생 어머니)

(편집자주) 샘물중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부모교육은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감사나눔으로 채워집니다. 2022년12월29일(목) 진행된 2022학년도 마지막 학부모교육의 고백을 담습니다.

평안하시죠. 저는 1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원 학생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10학년부터 샘물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사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자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원이가 중3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 엄마인 저는 남고를 가기를 원했고 서원은 교회 형누나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하여 이견이 생겼습니다. 사춘기 아들과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지혜로운 대처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에 서로 기도해보자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까지도 우리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심방을 간 집사님 가정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그 가정은 일반학교와 샘물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샘물 공동체가 제 마음에 들어왔고 우리 부부는 일단 기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샘물에 대한 마음이 커져 갔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서원에게 나누었는데 그때 서원의 반응

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서원이를 샘물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바꿔주시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대안학교를 보내는 건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싸인은 저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 원서 마감 3일 전에 갑자기 서원이가 샘물에 가겠다는 얘기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곳은 이곳이었구나라는 확신이 생겼고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0학년 편입이라는 것이 이미 형성된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입학 전부터 코로나라는 복병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전까지 어디를 가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 낯선 상황에 힘들어 했고 기존의 다녔던 학교와 다른 시스템에 자기만 이방인 같은 느낌을 들게 해 나름의 성장통을 겪어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편입생이기에 세심하게 살피시

“편입생이기에 세심하게 살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선생님들의 격려와 위로로 그 시기를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은 엄마 때문에 괜히 이곳에 와서 본인이 힘들다며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며 위로해주었습니다. (중략) 아이의 표현에 따르면 담임선생님은 천사 같은 분이시고 친구들 또한 각각의 개성은 있는데 한결같이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선생님들의 격려와 위로로 그 시기들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은 엄마 때문에 괜히 이곳에 와서 본인이 힘들다며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 까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며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원이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때쯤 좋은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원익이라는 친구가 다가와 주었는데 그 친구와의 사귄데서 서원이는 샘물에 깃들이는 것이 편해졌고 원익이를 통해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열리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원이의 표현에 따르면 담임 선생님은 천사 같은 분이시고 서원이가 사귀는 친구들 또한 각각의 개성은 있는데 한결같이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한고비를 넘으면 또다시 오르막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공황이 온 것 같다며 가끔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을 찾은 일이 떠오르면서 그때에도 폐 사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아이 얘기를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고2 겨울 이번에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어디든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던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기흉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 서원이의 증상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병이었고 그렇게 해서 흉부외과를 찾게 되었고 시술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는 건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공황이 아니었다는 안도감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원이가 입원을 하던 때부터 퇴원을 하기까지 선생님이 아이들과 중보기도로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환희 어머니로부터 서원이의 안부를 묻는 전화와 함께 어머니 기도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참여하게 된 어머니 기도회는 서원이의 입시의 시간들을 평안함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



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와 샘물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향한 기도를 함께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 세워졌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구나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된 고3 생활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하루는 원익이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서원이가 너무 먼 곳에서 등학교 하는게 안쓰럽다며 주중엔 원익이네 가정에서 등학교를 하면 어떨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마음이기엔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번도 떨어져본 적이 없는 서원이라도 어떨지 몰라 그날 저녁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 의외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짐을 싸서 친구네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 품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샘물에서 보내는 고3 생활은 서원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코로나로 담임선생님이 못 나오실 때는 담임선생님 없는 학교가 재미없다고 투덜덜 만큼 좋은 선생님과 날마다 만나도 좋은 친구

“아이의 입원과 수술을 거치며 그때부터 참여하게 된 어머니 기도회는 입시의 시간들을 평안함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와 샘물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향한 기도를 함께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 세워졌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구나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들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진로의 길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간호학으로 길이 정해지면서 이제 남은 일은 수능만 잘 치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2달 전 서원이에게 또다시 기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의 기도로 공동체의 사랑과 힘을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원이는 간호학으로 길을 정해서인지 입원해있는 동안 진통제로 견딜만 해지는 시간에는 현장체험을 하는 아이처럼 간호사의 일을 살피고 담당 선생님부터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서원이가 간호학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는 계속해서 대학에 가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해주며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입원기간을 남다르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술을 받고 퇴원을 하게되었는데 기흉이란 병이 워낙 재발율이 높은 병이라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겨우 회복을 하고 수능을 치루게 되었는데 기대했던 결과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좌절감을 느낄 서원이가 안타깝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여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서원이를 간호학과로 이끄셨고 가장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이를 샘물에 보낼 때 엄마인 저는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하는 심정으로 세상의 물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샘물을 떠나는 지금은 믿음으로 내 손에서 갈대상자를 놓아 띄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원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서원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도하게 됩니다.

을 느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원이를 샘물에 보낼 때 엄마인 저는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하는 심정으로 세상의 물이 서원이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샘물을 떠나는 지금은 믿음으로 내 손에서 갈대상자를 놓아 띄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원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서원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샘물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학년 감사나눔]

## 학부모 이야기 (2)

샘물중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 (박정훈 학생 어머니)

(편집자주) 샘물중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부모교육은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감사나눔으로 채워집니다. 2022년12월29일(목) 진행된 2022학년도 마지막 학부모교육의 고백을 담습니다.

고요합니다.

두 아이나 샘물에 보내면서도 고요합니다 라는 인사를 여러 학부모님과 나눌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둘째가 졸업하면서 이렇게 샘물의 예배당에서 여러 학부모님께 샘물의 시그니처 인사를 나누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샘물과 함께 한 9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순간 떠오른 말은 축복과 동행 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두 아이를 낳고 세 번의 이사 끝에 용인에 정착할 때까지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훈이 친구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바로 목장을 소개받아 정착하고, 큰애를 샘물에 보내기까지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끌어주 셧기에 가능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날 문득 돌아보니 주님이 동행하셨기에 저희 가정이 교회 안에서 평온함을 갖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애와 둘째는 너무나도 성향이 달랐습니다. 직진 수진이라는 별명이 있을만큼 자신의 생각과 욕구에만 몰두하는 큰 애는 제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너무나 소심하고 작은 주목조차 못견뎌하고 가족에게만 마냥

뽀족하게 굴던 아이였습니다. 큰 애를 누르다 보면 둘째는 더욱 소심해져서 눈도 못마주치고.. 둘째를 다그치다 보면 큰 애는 또다시 어디론가 튀어가버렸고..

교만하게도 저는 그 상황을 제 방식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두 아이 모두 제 뜻대로 전혀 되지 않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꼴도 보기 싫었지만 학부모 교육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연합예배 역시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아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학년말에 소감문을 써야 했고 소감문을 쓰느니 몸만이라도 가자 하는 마음에 참석했는데 학부모 교육의 강사님들은 어찌 그리 제게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지요. 학부모 교육을 받고 나면 늘 제 자신을 반성하곤 하였습니다. 괜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아이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반성을 했지만 유효 기간이 짧아 다시 아이들과 부딪힐 때쯤 이번에는 연합예배의 날이 돌아오

더라구요. 그리 미웠던 아이지만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이 손을 꼭 한번 잡아 주게 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묵혀두었던 이야기도 하다 보면 그렇게 그렇게 갈등은 봉합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때로는 찬양이, 때로는 설교나 강의 말씀이 저를 지그시 눌러주셨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만일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면 몰랐을

“두 아이 모두 제 뜻대로 전혀 되지 않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꼴도 보기 싫었지만 학부모 교육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연합예배 역시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소감문을 쓰느니 몸만이라도 가자 하는 마음에 참석했는데 학부모 교육의 강사님들은 어찌 그리 제게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지요. (중략) 반성을 했지만 유효 기간이 짧아 다시 아이들과 부딪힐 때쯤 이번에는 연합예배의 날이 돌아오더라구요. 그리 미웠던 아이지만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다보면 저도 모르게 아이 손을 꼭 한번 잡아주게 되고...

“9년 동안 느낀 것은 샘물 아이들도 사고칠 것 다 치고, 못된 짓도 합니다. 다만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가정과 교회, 게다가 학교까지 동행하다 보니 기다림 속에서 샘물의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라구요. 그러나 9년 동안 느낀 것은 샘물 아이들도 사고칠 것 다 치고, 못된 짓도 합니다. 다만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가정과 교회, 게다가 학교까지 동행하다 보니 기다림 속에서 샘물의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의 두 아이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샘물에 보냈기 때문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샘물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샘물은 저희 부부에게 두 아이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탁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셨고, 샘물에서 알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저희는 학교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샘물에 보내면서 학교를 통해 주님을 제 삶과 저희 가정의 중심에 두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 그저 의지하느라 손놓고 있어도 주님께서 다 해주심을 경험하며 가정이나 아이의 문제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를 기독교 대안 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아이가 마냥 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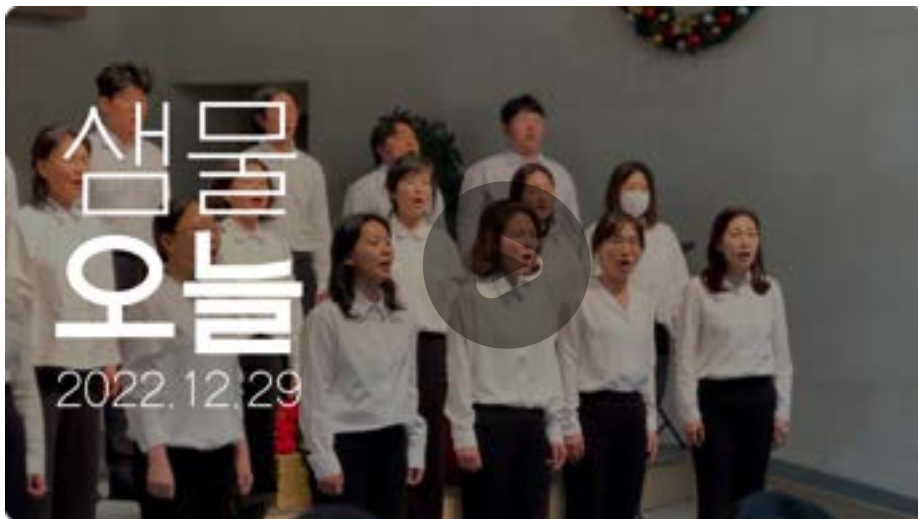
“샘물은 저희 부부에게 두 아이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탁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셨고, 샘물에서 알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저희는 학교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샘물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주님과 관계, 주님의 임재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인내심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 학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을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정과 학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동행하며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 샘물중고등학교 학부모교육이 있던 날, 샘물오늘 풍경



# 샘물배움공동체 교실 속 이야기



은혜샘물유치원 갤러리





## 1학년 고사리손 프로젝트\_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은혜샘물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일명 고사리손 프로젝트. 가을의 풍경을 담아 엽서와 스티커를 만들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프로젝트였답니다.

이 일은 즐거운생활에서 이웃에 대해 배우며 지구촌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11월7일(월)-11(금), 엽서를 판매해 그 수익금(2,097,100원)은 사마리안퍼스코리아 (<https://samaritanspurse.or.kr/>)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돕기에 기부되었습니다.





## 자연을 그리는 우리들의 자연도감

은혜샘물초등학교 봄여름 방과후교실로 열린 <자연을 그리는 우리들>은 학교를 둘러싼 자연 속에서 다양한 동식물들을 마음껏 관찰하고 상상했습니다. 즐겁게 그려본 학생들의 크고 작은 그림을 PDF 책으로 만들고 학교 안에 전시도 진행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했어요.





### 할미꽃

할미꽃은 4월에 꽃이 핀다.  
흰 털로 덮여있는 모습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같이 보아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림, 김주원, 김지수, 김지영



## 할아버지 나뭇가지

발이 걸리기 쉽고 흙으로 위장을 잘한다.  
자연학습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림, 김지하

24



## 두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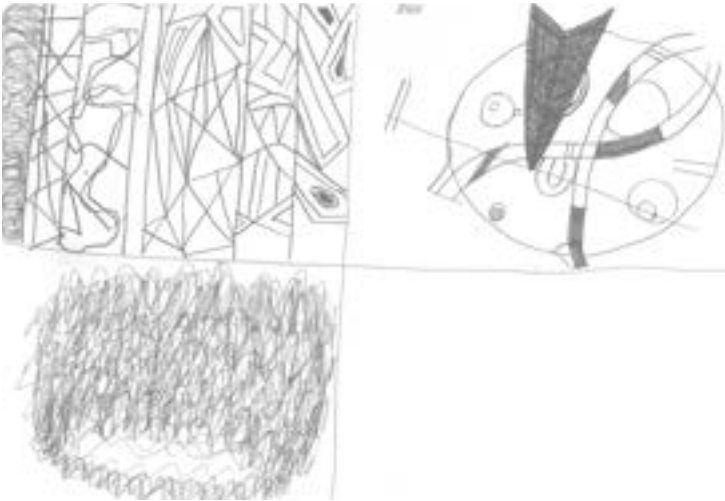
두더지의 몸은 원통 모양에서 땅굴을  
돌아다니기에 좋다. 큰 앞발로 땅굴을 파고 산다.  
웁충, 번데기, 거미, 지렁이 등 땅에 동물 먹는다.

그림, 김지하, 2004

25

## 음악과 함께하는 미술시간: 칸딘스키처럼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미술시간**. 음악선생님과 미술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앙상블과 오케스트라 볼레로 연주를 듣고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여 신체로 표현하거나 여 점, 선, 면, 색을 통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미술시간에는 음악에서 영감을 얻었던 **칸딘스키처럼** 추상적인 표현해 보았습니다.



칸딘스키처럼 음악에 영감을 받아



칸딘스키처럼 점선면으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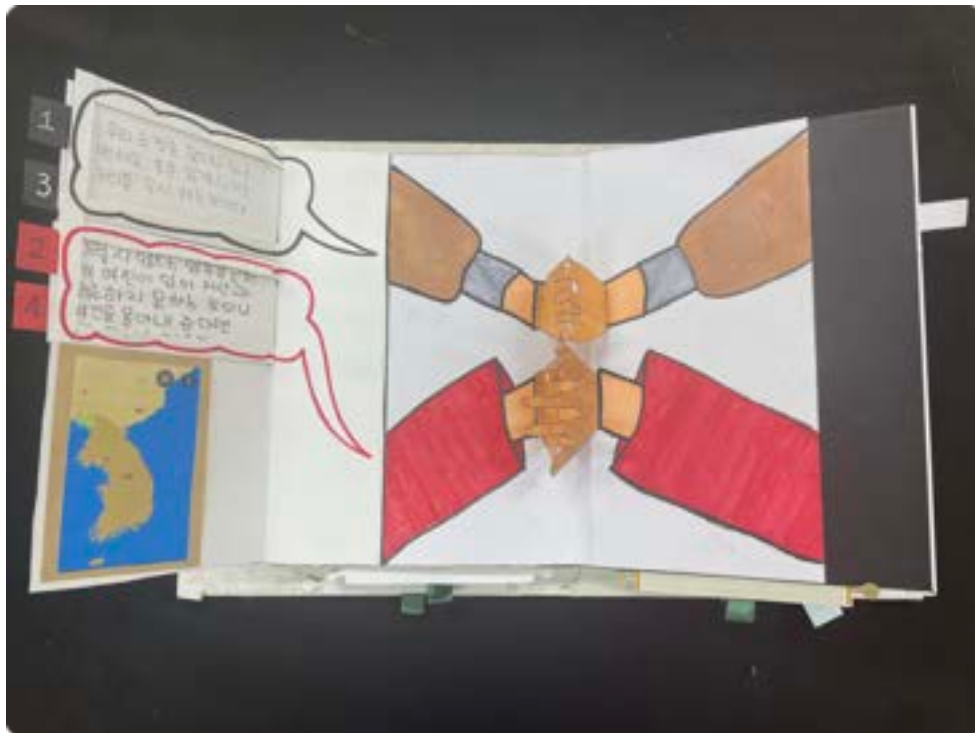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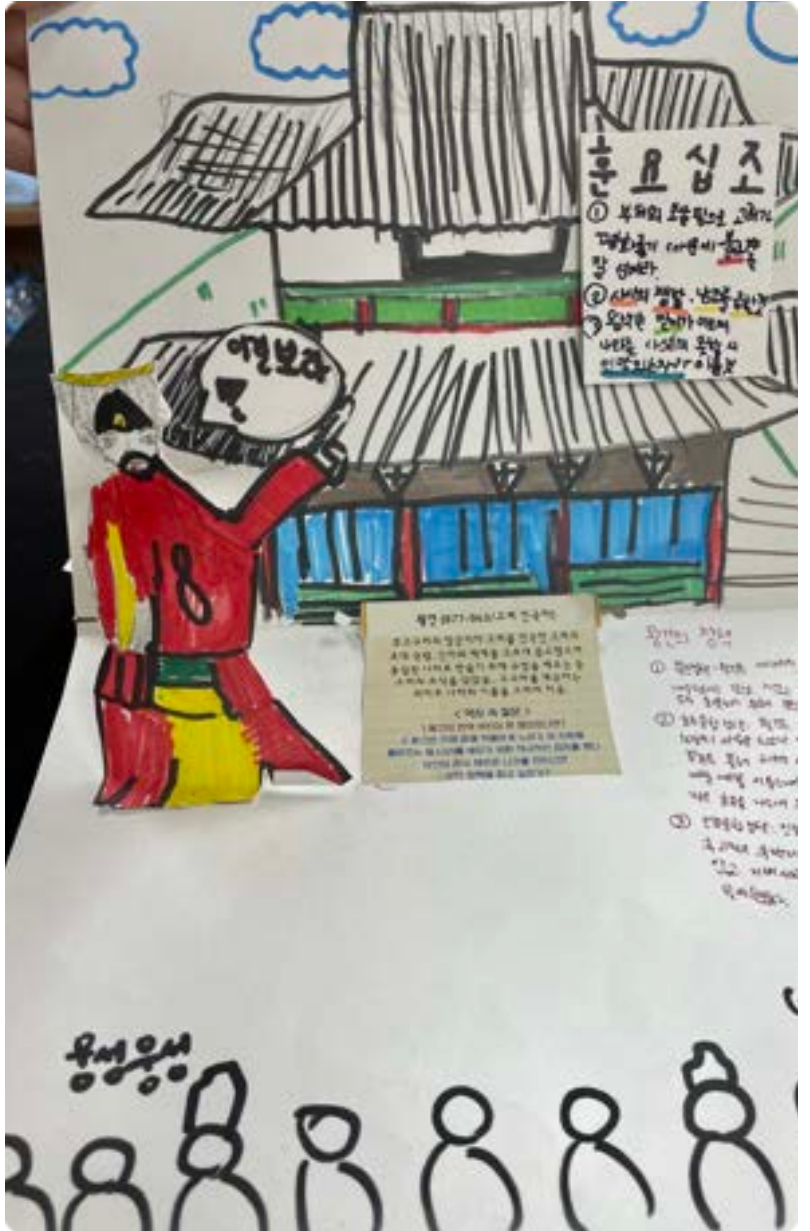
### 6학년 형님들의 전시를 보고

6학년의 칸딘스키 전시를 본 2학년 학생이 영감을 받아서^^ 미술시간에 따라서 표현해보는 사진이에요.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자유 창작 시간에 저렇게 해보더라고요.  
(기아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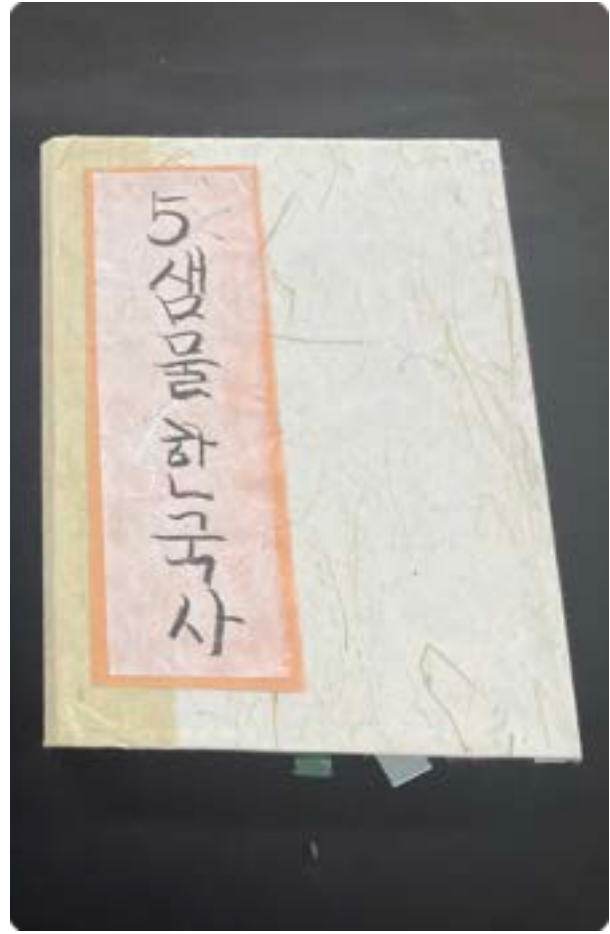
## 역사와 함께하는 미술시간: 5학년 역사인물 팝업북

은혜샘물초등학교 **5학년 미술수업은 역사와 미술의 융합수업**으로 진행되었어요. 5학년때 인물 중심으로 한국사를 훑어보는 수업이 있어요. 미술 시간에 팝업의 원리를 배우고 역사시간에 배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팝업 기법을 활용해 담아보았습니다. 역사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도 만들어서 넣어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팝업북  
클릭하면 보실 수 있어요.



## 임인년 국어과 과거시험

2022년 11월 진행된 샘물중고등학교 학술제 '샘물, 거두다'에서 국어과는 시 짓기 과거시험을 진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중 급제작들을 소개하오~

## 일 년

유지산

일년을 살아가다 보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있다.

오늘이 특별히 완벽해서도, 불행해서도,  
어려워서도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비참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나라고, 그대라고 어찌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도, 그리고 당신도 하루,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어 벌써 일 년을  
되돌아보고 있다.

남은 일 년, 앞으로 다가올 일 년 또한  
쉽고, 아름다울 것이라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나도, 당신도 그 시간을 살아낼 것이다.  
지금껏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살아낼 것이다.

초심도

찬란한 새벽이로  
시작했으니

따뜻한 노을로  
마무리 하리라

송해슬

벌써 일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  
새로운 내일만큼  
바라보게 하심에

김윤미

## 화원

누군가는 온실 속 화초라 할 것이다.

장성하여 이 밖으로 나가면 어찌 사나고

그런데 화초가 아니라 묘목이라면

마냥 급계 길러진 꽃이 아니라,

뿌리를 다지는 묘목이라면

이 화원의 묘목들의 영혼이 너 영혼의

속 깊게 다져져 온 땅의 뿌리게

뿌리도 뿌리다.

이  
예  
지



## 2022 학술제 '샘물, 거두다'

샘물중고등학교 2022 학술제 '샘물, 거두다'의 다양한 활동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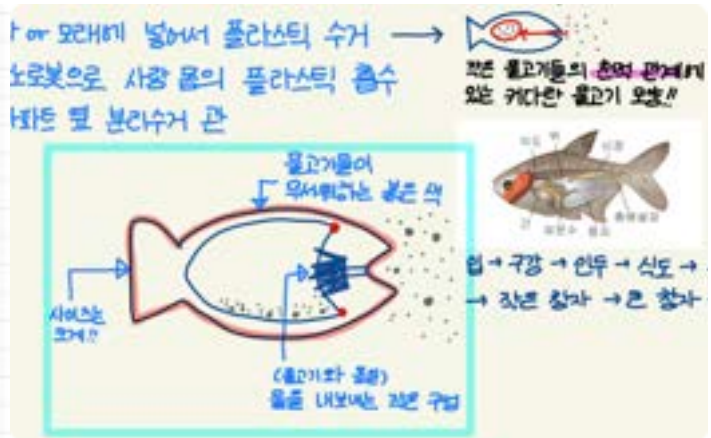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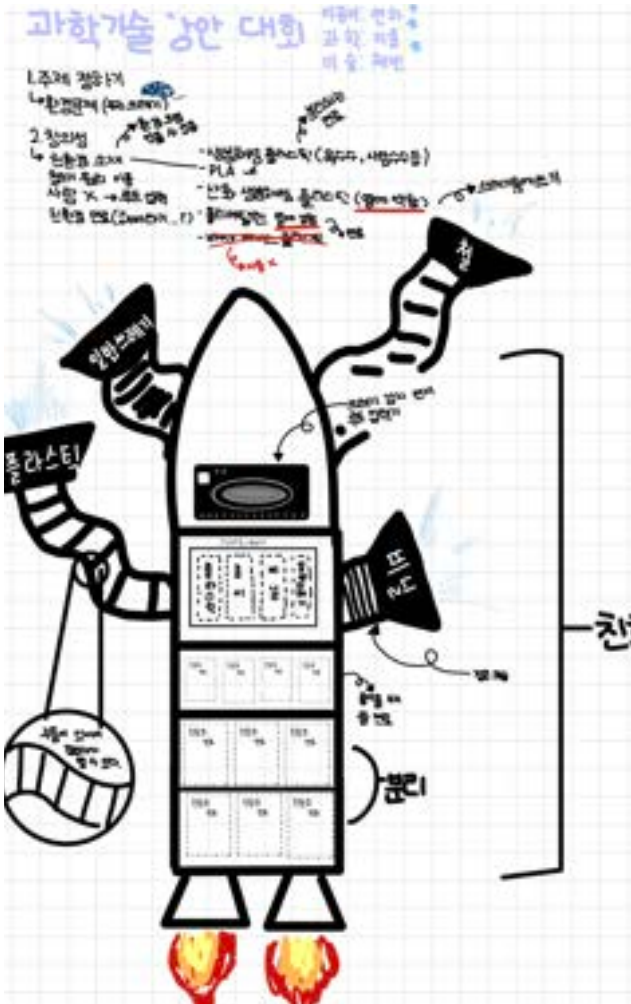
## 7학년 샘물수업 과학기술창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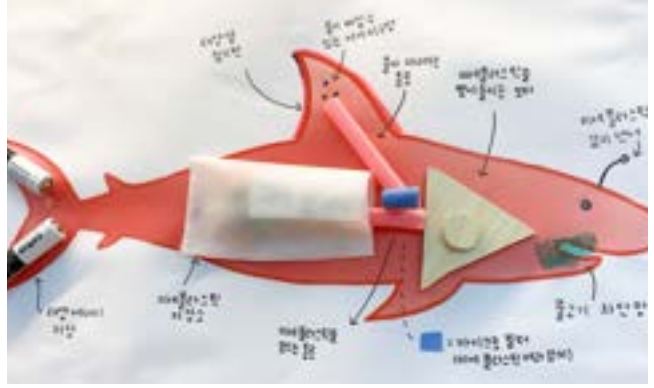
샘물중고등학교 샘물수업은 성경, 노작, 예술, 연극, 과학, 미디어, 사회, 인문, 철학, 진로 등 다양한 학문과 주제가 연결된 융합수업이에요. 기존 8학년 수업에서 2021년 7학년, 2022년 9-10학년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지요.

그 중 **7학년 샘물수업**은 농사와 목공, 과학과 예술의 융합(STEAM), 평화적 대화모임 서클(Circle) 등이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성경, 과학, 미술, 목공 선생님들이 함께 하신답니다. 가을겨울학기에는 환경과 생태 문제 해결을 풀어보는 **과학기술창안대회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위해 고민하고 해결책도 만들어봤어요. 샘물인의 손끝으로 만들어본 더 나은 미래. 과학기술창안대회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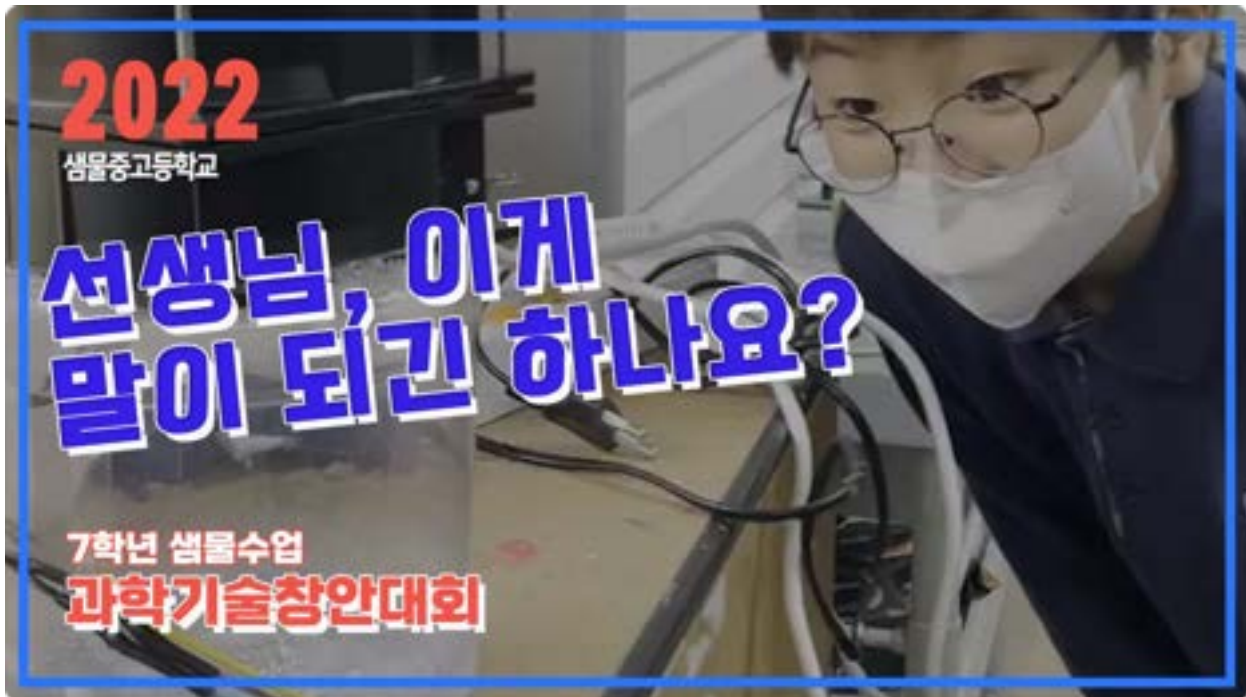




## "그런데 이게 말이 되긴 하나요?"

농사도 짓고, 성경도 배우고, 미래도 그려보았던 7학년 샘물수업의 가을겨울학기. 환경과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책도 만들어봤어요. 샘물인의 손끝으로 만들어본 더 나은 미래. 과학기술창안대회 속으로.

"그런데 이게 말이 되긴 하나요?" 답은 영상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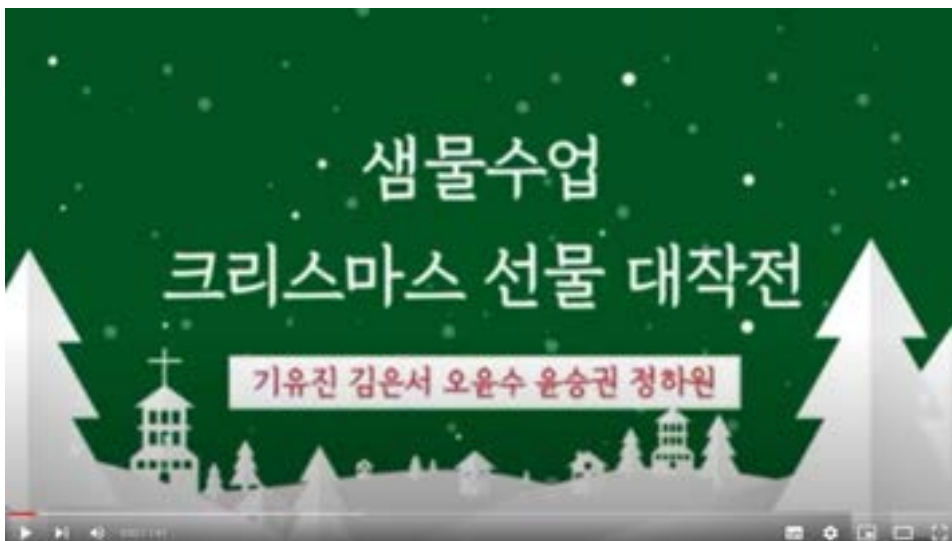
## 9학년 샘물수업 '이웃사랑' 프로젝트

샘물중고등학교 9학년 샘물수업에서는 '사회-경제 프로젝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중 한 조가 우리의 이웃인 아동복지시설 '하희의 집'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영상을 전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쓰지 않은 새 물품 중 미취학아동에서 대학생까지 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 잘 포장해서 하희의 집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희의 집'은 용인 소재의 아동복지시설로, 샘물은 2021년 크리스마스에 전교생이 선물을 모아 사랑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

크리스마스 선물 대작전 (기유진, 김은서, 오윤수, 윤승권, 정하원)



## WE ARE ONE 캠페인

9학년 샘플수업의 또다른 팀은 인권과 차별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문제를 조사하며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 특히 학교폭력에 집중해 관련한 교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 중 하나로 스티커를 제작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나누어주었다고요. 하나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 10학년 과학탐구실험수업

샘물중고등학교 **10학년 과학과 과학탐구실험수업**은 10학년 학생들이 모두 조를 이뤄 한 가지를 주제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완성하는 수업입니다. 1년에 걸쳐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 탐구한 13개의 주제로 논문을 완성했어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기존 플라스틱 대체 가능성 탐구 (10학년 1반 김고은, 김선현, 박홍규)

얼음의 크기와 용해 속도의 상관관계 (10학년 1반 김노아, 심수민, 허소윤)

스티로폼과 밀기울의 비율에 따른 밀웜의 보존 상태에 대한 연구 (10학년 1반 송채린, 이예린, 박재윤)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용기의 재활용을 위한 일회용 종이컵의 폴리에틸렌 코팅층 분리 연구 (10학년 1반 유지산, 오현아, 이유성)

유속과 녹조류 생장의 상관관계 (10학년 2반 박소은, 이태림)

전자파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 (10학년 2반 김유은, 임서진, 최다해)

영상매체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10학년 2반 김경민, 심승현, 서예준)

음악 템포와 암기력 간의 상관관계 (10학년 3반 김성윤, 이현서, 주예담)

커피찌꺼기 비율과 식물의 성장 속도에 관한 상관관계의 연구 (10학년 3반 김정원, 윤노아, 허열매)

물의 성분이 식물의 성장에 주는 영향 (10학년 3반 김한준, 박진우, 서주은, 이가은)

흙의 종류에 따른 상추의 성장(10학년 4반 강민주, 이수아, 조예린)

소리 주파수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10학년 4반 강윤민, 김경민B, 정진영)

혈당 측정을 이용한 밀키트와 가정식의 차이점(10학년 4반 강여진, 박민준, 전재린, 정시은)영



클릭하면 논문 전문을 보실 수 있어요

**제 4회 과학탐구프로젝트대회**

**유속과 녹조류의 상관관계**

2022. 12. 12

10-2 박소은

10-2 이태림

클릭하면 논문 전문을 보실 수 있어요

제 4 회 과학탐구프로젝트대회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기존 플라스틱 대체 가능성 탐구

2022. 12. 13

10-1 김고은

10-1 김선현

10-1 박홍규

## "뭐냐, 우리 하는 게...?"

중간에 길을 잃기도 했지만, 결국은 완성한 실험과 논문.  
봄학기부터 겨울학기까지 10학년의 과학, 탐구, 실험, 그리고 논문의 세계를  
영상에 담아 봤어요.



## 11학년 언어와매체 카드뉴스

샘물중고등학교 11학년 국어과 선택과목 '언어와매체' 수업입니다. 학교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기사로 쓰고 그것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학교에 게시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카드뉴스는 [샘물배움공동체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식을  
남기지  
말시다



## 7학년 사회 자연재해 뉴스 제작하기

샘물중고등학교 **7학년 사회수업** 겨울학기는 자연재해 관련한 방송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조를 나눠 세계의 자연재해를 조사하고 그 현상과 원인을 뉴스 형식으로 풀었어요. 원인에 대한 분석을 들으니 지금 사회시간인지 과학시간인지 헷갈리네요. 특파원도 되었다 기상전문교수도 되었다 바쁜 샘물인. 많은 뉴스가 도착했지만 무작위로 한 개만 뽑아 실었어요.

### [ 뉴스 ] 미국 토네이도 사상자 발생





## 8학년 샘물의 해바라기

160CM X 200CM  
VAN GOGH REFERENCE IDEAS

고흐의 해바라기를 작품을 레퍼런스로 작업한  
8학년 25명 학생작가의 30조각 작품.

참여작가:

구하영 권설아 김민기 김선진 구주영 김재현  
강은성 김대경 김도현 김소윤 김하준 송해슬  
박예빈 양준우 유은비 이도윤 장은울 강민재  
백한결 이에진 이주원 심재훈 임태빈 장세현



2022년

## 제 10회 독서마라톤 시상

### 씨앗(1,000쪽) 독서

7 김하랑(1,072쪽)  
8 박수진(1,042쪽)  
8 박예찬(1,044쪽)  
8 백한결(1,192쪽)  
8 양준우(1,574쪽)  
8 정한결(2,024쪽)  
9 김규민(1,719쪽)  
9 박주현(1,112쪽)  
9 윤승권(1,208쪽)  
9 이건우(2,360쪽)  
9 이주원(1,369쪽)  
9 최이세(1,009쪽)  
9 하주호(1,250쪽)  
10 심수민(1,076쪽)  
11 임지혜(1,205쪽)  
12 김지예(1,575쪽)  
부모 오근해(1,126쪽)  
부모 정은혜(1,306쪽)

### 새싹(3,000쪽) 독서

7 양혜빈(3,154쪽)  
7 이시우(21,391쪽)  
7 조예준(3,019쪽)  
7 최시온(3,118쪽)  
9 손준호(3,140쪽)  
11 최성겸(4,110쪽)  
교사 박고운(3,039쪽)  
부모 오동원(3,251쪽)

### 들꽃(5,000쪽) 독서

7 유하솜(5,274쪽)  
7 전하언(5,139쪽)  
7 정예담(6,829쪽)  
8 강예나(9,055쪽)  
8 권설아(5,085쪽)  
8 남서현(6,816쪽)  
9 김주아(5,075쪽)  
부모 황미정(5,192쪽)

### 냇물(10,000쪽) 독서

7 박윤찬(10,180쪽)  
8 장주하(10,086쪽)  
8 황지우(10,064쪽)  
부모 조현철(10,010쪽)

### 바람(15,000쪽) 독서

9 안효민(15,183쪽)  
9 우수인(15,088쪽)  
10 최다해(15,255쪽)

### 사자(21,097쪽)

7 지민준(23,286쪽)

### 월계관(42,195쪽)

12 정진영(44,759쪽)



## 학부모도 함께 쓰는 샘물 자기경영서 2022 학부모 자경서상

이정호 (14기 이시우 아버님)  
이현정 (13기 박예찬 어머니)  
윤혜정 (11기 강윤민 어머니)  
서명관 (14기 서윤재 아버님)  
이석영 (14기 이강민 아버님)  
민혜경 (12기 손지애 어머니)  
정은혜 (14기 윤은오 어머니)



섬기는 예수제자  
샘물배움공동체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일** 2023.02. **발행처** 샘물배움공동체 **발행인** 윤만선  
1698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 (상하동 506번지)  
**T.** 031 714 7091 **F.** 031 8005 7093 **E.** public@smca.or.kr [www.smca.or.kr](http://www.smca.or.kr)